



Index

2면 NEWS

400년전 조선통신사 대마도 답사 재현 / 관악구&강동구 협약 체결 / 환경대학원 윤리지침 마련 실행

3면 인터뷰

김기호 환경대학원 원장 인터뷰- 아시아지속가능연구센터 설립 배경과 목표 / 지속가능연구센터 연구과제

4면 환경대학원

최병선 동창회장 뉴스레터 창간 축하사 / 환경대학원 동창회 현황

5면 환경대학원

양병이 교수(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인터뷰 / 환경대학원 교수소식

6면 도시·환경 고위 정책과정

남승우 풀무원 사장(CEO지속가능경영포럼 2기 회장) 인터뷰 / CEO과정 7기 수료식

7면 도시·환경 고위 정책과정

CEO지속가능경영포럼(상반기), 도시·환경 디자인최고전문가과정(하반기) 커리큘럼 / 공의 도시환경디자인센터 / 송년회

8면 교수 칼럼

이정전 교수-기후변화에 대한 공방 / 전상인 교수-조선일보 시론

내년 가을 지속가능연구센터 발족에 맞춰 환경대학원 40년 기념행사

환경대학원 40년 기념행사가 서울대학교 개교기념시점인 내년 가을에 아시아지속가능연구센터 발족에 맞추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념행사는 크게 국제학술대회, 갤러리 전시회, 연중 기획된 콜로키움 및 동문의 밤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아시아지속가능연구센터 설립 추진

서울대학교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도록 하는 아시아지속가능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이 연구센터는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핵심 싱크탱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TF팀이 구성, 설립 작업을 추진 중이다.

750억원 규모 내년 하반기 발족 정부와 민간 50%씩 출연 목표

아시아지속가능연구센터의 건물은 서울대 캠퍼스 내, 또는 서울시내에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대가 부지를 물색 중이다. 이 연구센터는 2,000평 규모의 연구빌딩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토지비와 건축비로 약 350억원, 건물건립 후 기자재 구입비용을 포함한 센터운영비로 매년 2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지속가능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약 750억원으로 책정, 재원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대는 소요 경비의 50%를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나머지 50%는 기업체와 민간 등에서 기부를 받는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아시아지속가능연구센터에는 환경과 경제 사회분야 등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위해 8개 분야 연구센터로 나누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8개 연구센터는 환경, 에너지, 교통, 경제, 사회, 지역개발, 생태, 도시건축이며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공대 자연대 농생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물론 외부기관의 전문가들도 참여하게 된다.

아시아지속가능연구센터는 지속가능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중점적

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 지역사회, 기업 등을 통한 사회실천과 전문가 교육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환경 경제 사회 융합 다학제간 연구 서울대 및 외부기관 포함

서울대 측은 지속가능연구센터 건물 착공에 앞서 이미 각 분야별 연구는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기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지속가능연구센터 설립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유지하려면 환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환경과 경제는 서로 떼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환경지속지수는 120위권에 불과해 앞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경제대국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관련사 3면 >



피아노와 커피가 있는 환경대학원 PC Room 환경대학원 2층에 있는 PC Room이 새롭게 단장했다. PC Room은 Piano와 Coffee의 이니셜을 따와 명명한 것으로 환경대학원의 랜드마크로서 휴식을 취하는 라운지이다. 최근 쇼파를 테이블과 의자로 교체하고 피아노 아래 따뜻한 느낌의 러그를 장만했다. 새 단장을 위해서 조정진 교수가 특별히 안목을 발휘했다.

400년전 조선통신사 대마도 답사 재현



환경대학원 이희연 부원장과 최막중 교수를 포함한 6명의 교수와 23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지난 10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일본 대마도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학술 답사는 환경계획학과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의 하나이다. 이번 답사는 조선시대에 대마도로 조선통신사를 처음 보낸 지 400주년을 기념해 계획된 것으로 환경대학원 학생들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둔 한국과 일본의 지리적 접근성과 역사적 교류

관계 등을 직접 체험했다. 이들 답사단은 대마도에서 역사와 지역환경을 둘러보며 한국전망대, 최익현 국순비 등 그곳에 있는 여러 역사적 유물을 둘러보면서 처음 이들의 일정을 보냈다. 이어 후쿠오카로 이동한 환경대학원 팀은 후쿠오카의 도심활성화 사업, 복합상업시설들을 둘러보며 한국의 시설물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이는 학생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포함한 일본의 도시계획 및 설계, 개발 사

레 등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공기오염이 심각했던 공해 도시에서 UN지정 세계환경 생태산업도시로 거듭난 키타쿠슈를 답사함으로써 도시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학생들은 이번 답사를 통해 세계화 흐름에 맞는 국제적 지식과 감각, 태도 등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환경대학원 내의 도시·지역계획과 환경관리 전공에 대한 상호이해가 높아졌다는 것도 답사의 결과물이다.

환경대학원 윤리지침 실행

환경대학원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환경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윤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방의 사용 유무에 따라 난방 조절 할 수 있는 on/off 시설 또는 타이머를 설치
2. 전자제품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 끄고 플러그 뽑기
3. 에어컨 대신 부채와 선풍기 병행사용 효과를 홍보하고 환경대학원 부채를 제작해 배포
4. 에너지효율 형광등 사용, 낮 시간 동안에는 부분 소등 실시, 화장실은 센서등으로 전력 소비 감소
5.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한 층수 설정, 이용시간 한정하기
6. 야근시간에는 자판기 가동 줄이기
7. 건물 전체 수도꼭지를 절수 수도꼭지로 교체
8. 재생 A4용지 사용, 이면지 수거 체계 마련, 종이컵 사용 금지
9.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 (캔·병·플라스틱, 코팅 종이류, 일반쓰레기, 폐지함)
10.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장터 게시판 운영

2020년까지 관악구 발전 전략 수립키로 환경대학원, 관악구와 지속적 연구협약 맺어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관악구와의 협약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악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장기비전 전략 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는 지난 2005년 환경대학원과 관악구가 맺었던 '연구교류 협약서'에 바탕을 둔 것이다. 2008년 7월 말까지 진행될 이 연구는 2020년도까지 관악구의 장기비전 계획 수립을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대학-지역사회를 연계시켜 서울대학교와 관악구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핵심전략 수립을 통해 관악구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악구의 비교우위를 높이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

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대학원은 최막중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연구팀(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설계, 조경계획, 교통관리, 환경관리 등)을 조직했으며, 관악구의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도 구체화 시킬 예정이다. 연구팀의 성과는 관악구 장기발전 정책개발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관악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대학원이 진행하는 교육연구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할 것이다. 또한 연구과제 발굴과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환경정책 연구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대-강동구 협약연구 2차 연찬회 개최



지난 10월 24일 '2007 강동구 협약연구'의 2차 연찬회가 환경대학원에서 열렸다.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07년 1월 환경대학원과 강동구가 상호협력하기로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첫 프로젝트이다. 이번 연찬회는 협약연구의 중간발표를 위한 자리로서 연구에 참여한 8명의 환경대학원 교수진과 10명의 연구진, 그리고 최용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20여명의 강동구청 국과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환경대학원 학생들이 수행한 강동구 주민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강동구 그린웨이 마래구상, 전호대로의 개선 방향, 강동구 마케팅·업그레이드 전략, 강동구의 전략적 포지셔닝 등 강동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김광중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되는 이 협약연구는 12월 말 환경대학원 내부 자문회의를 거쳐 내년 1월 말 강동구와 3차 연찬회를 가진 후 종료된다. 환경대학원과 강동구는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제에 2008년에도 협약연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환경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강동구를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현장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가능연구센터 설립 배경과 목표

“지속가능성 구현하는 싱크탱크 될 것”

아시아지속가능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아시아지속가능연구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미래 한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발전은 환경이슈를 고려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환경과 경제 사회문제를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연구센터가 필요한 시점이 됐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연구센터가 설립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속가능성은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 발전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와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세계적 화두이자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경과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이의 협력도 약한 편이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연구센터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환경문제라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환경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발전이 환경의 희생 속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날 성장과 개발 위주의 발전 전략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 도시 난개발, 재난과 재해 등 많은 심각한



강호 환경대학원 원장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기준으로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지만 환경지속지수(ESI)는 12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환경 지속 능력으로 보면 후진국에 속한다는 얘기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과 경제는 점차 상호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환경이슈가 곧 경제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 초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세계적 경제지도자들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이슈를 세계경제의 지속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뤘습니다.

지속가능연구센터의 목표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핵심 싱크탱크가 되는 것이 아시아지속가능연구센터의 목표입니다. 우선 환경과 경제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와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통문제는 교통분야에서만, 도시

설계는 도시설계에서만 연구하고 학제간의 연구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분야에서만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이 끝이었죠.

하지만 이런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도 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벌써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경제, 환경, 사회적 형평성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서로 협력해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사회변화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지속가능연구센터가 맡을 것입니다.

아시아지속가능연구센터는 서구국인들이 아닌 우리나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정책과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추상적인 것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연구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기업 시민단체,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고리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지속가능연구센터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요

아시아지속가능연구센터의 핵심기능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8개 연구섹터별로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한국형 대응전략 등 9개 주제별 연구과제를 설정했으며 일부 과제는 이미 연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연구센터는 또한 이들 연구결과를 중앙 및 지방정부나 지역사회, 기업, 외국정부기관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일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밖에 학부 및 대학원 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 및 전문가재교육 등도 맡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 지역사회를 잇는 로컬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와 교육의 성과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게 촉진하는 것이 아시아지속가능연구센터만의 지니는 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환경의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지수가 높아지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환경지수가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발전은 커녕 유지하기로 힘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20년 후면 환경지수 30위권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속가능연구센터 같은 연구기관이 없다면 경제 10위권 유지가 힘들어지고 환경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경제와 환경이 함께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인들도 환경이 좋지 않다면 투자를 꺼립니다. 예컨대 빌게이츠가 아시아 지역에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 공장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한국은 후보에도 끼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장을 설립함에 있어서 환경지수 순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보다 환경 지수가 높은 싱가포르 등을 우선시 하기 때문이지요.

환경이 선진국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 또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는 물론 환경 또한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 지속가능연구센터 연구과제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국토·에너지 대응전략
- 동북아 경제·환경 공동체의 다자간 지역협력
-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국토환경관리
- 한국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갈등관리

- 후세대를 위한 친환경 지속가능개발(ESSD)과 도시성장관리
- 탈산업사회의 도시재생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글로벌시대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역혁신
-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는 개성있는 도시 디자인과 건축

뉴스레터 창간을 축하하며

고도성장 뒷면 환경파괴 문제점 고민할때



최병선 (동창회장, 국토연구원장)

얼마 전에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시(구 사이공)를 다녀왔다. 베트남 통일 후 사회변화와정에 대한 한국·베트남 합동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남·북한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통일과 개혁·개방경험은 유익한 시사점이 될 것이었다.

베트남 통일은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던 베트남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왔다. 통일 후 당분간 체제통합의 과도기를 거친 후, 베트남 정부는 파괴해진 경제를 다시 재건하는데 최대목표를 두었다.

이 과정에서 1986년에 이른바 도이 마이(개혁)정책이 도입됐고, 이어서 연이은 전쟁으로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개혁·개방정책의 결과 베트남 경제는 과거의 모습을 일신했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베트남을 찾는 외국투자가 줄을 이었고, 이에 따라 연평균 8% 내외의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인 하노이와 호치민 지역은 연간 10% 이

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베트남 직접투자는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서서 세계 1위 투자국이 됐다.

이런 적극적 투자활동과 한류의 영향을 타고 베트남이 갖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서는 대단히 호의적이다. 우리와 회의를 공동주관했던 베트남 사회과학원 인사들은 하나같이 주장했다. 개혁·개방 없이 경제발전 없다. 그리고 개혁·개방은 국민 의식, 행태의 변화를 수반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대단히 알리 있는 주장이다. 이것은 북한의 앞날에 대해 시사하는 바 크고, 선진국 진입을 앞둔 우리에게도 역시 의미 있는 교훈이다.

개혁·개방을 통한 고도성장은 비단 베트남에서만 접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웃 중국도 개혁·개방이후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두바이 개발은 베트남·중국과는 또 다른 고도성장의 모델이다. 이들 나라 또는 도시의 낮과 밤은 대단히 활기차다. 거리, 상점에 인파가 넘쳐흐르고 사람들의 몸짓에 활력과 자신감이 있다.

시가지 도처에 크레인이 걸려있고, 도시 스카이라인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 그리하여 적어도 주요 거리, 건물을 통해본 이들 지역의 현재 모습은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른바 고도성장이 가져온 긍정적 결실이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적지 않은 부정적 산물이 함께하고 있다. 이를테면 상시적인 교통혼잡과 극심한 대기오염, 도시확장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사회적·지역적 양극화 심화, 도시공간의 획일화와 개성상실 등이 그것이다.

특히 땅값·집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하노이, 호치민의 집값·땅값은 서울보다 싸지 않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땅은 국유이고 단지 이용권을 30~50년간 임대하는 것임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고도성장의 이면에 지리 잡고 있는 이런 부작용들이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스스로 가로막는 요소들이다.

개발 또는 성장에 따르는 긍정과 부정은 이렇게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원론적으로 보자면 그렇다. 개발은 본질적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행위지만, 기존질서의 파괴에 따른 저항과 새로운 질서의 태동에 수반하는 혼돈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항과 혼돈이 두렵다고 해서 개발을 포기해도 될까? 그것은 아니다. 고인 물은 썩듯이 정지된 상황에서는 기존 상태의 존속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 자체가 변화의 연속이고 끊임없는 개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저항과 혼돈, 즉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발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것을 흔히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고 한다. 보다 구체화하자면 급급적 환경훼손이 적은 개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개발, 양극화를 부추기지 않는 개발, 전통과 개성이 살아 있는 개발, 투기와 같은 지나친 욕심이 지배하지 않는 개발, 합의에 기초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개발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베트남과 중국은 지금 지속가능한 개발의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아직은 개발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한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깊이 숙고해볼 만한 주제다. 개발의 밝은 앞면과 어두운 뒷면이 현란하게 교차하고 있는 베트남을 보면서 느끼는 소회다.

3천여 환경대학원 동문 '환경 한국' 선봉장



환경대학원 동창회는 1974년에 처음 결성된 이후 3천 4백명 규모로 크게 늘었다. 이들 교우는 사회 곳곳에서 환경 한국을 지키는 선봉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대학원 동창회는 처음 결성 당시 고건 전 국무총리가 초대 회장을

맡았다.

환경대학원 동창회는 환경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수료 및 졸업한 자(도시·환경 고위정책과정 수료자는 본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회

원이 된다.

현재 17대를 맞이한 동창회는 최병선 국토연구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고, 오영태 아주대학교 교수, 김경윤 (주)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전홍규 진흥기업주식회사 대표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동창회는 동문 교류 행사와 장학사업 등을 총괄한다. 동창회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는 매 분기별로 1회씩 동문 전체와 환경대학원 교수들이 참여하는 '동창회 조찬모임'과 학과 및 전공별로 '모교방문의 날' 행사 등이 있다.

또한 동창회에서는 매년 성적 우수 재학생들 12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동창회		
총회원 : 3,382명 (2007년 현재)		
· 박사 : 162명(1983~2007.8)		
· 석사 : 2,612(1968~2007.8)		
· 고위과정 : 608명		
서울대 환경대학원 동창회 회장		
회수	성명	직함
1대	고건	전서울시장
2대	윤백영	전 서울시립대 교수
3대	정규영	전 도회종합기술공사고문
4대	우명규	전 서울시장
5·6대	김이환	이영 미술관장
7대	작교	작교
8·9대	김병민	마리뷰건설회장
10대	류원규	보리건설 부회장
11대	박형석	LG화학 테크놀로지 회장
12대	박중배	대전대 교수
13대	전석홍	전한·리당 국제재민위원장
14대	이정식	전 국토연구원장, 현 인양대 교수
15대	정영식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16대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 현 수자원공사 사장
17대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Interview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 취임한 양병이 교수

“녹지 부족한 서울을 숲으로 푸르게”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8월말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CEO 지속가능경영포럼 멤버들이 주도해 만든 민간재단법인인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양교수는 올 6월 환경의 날에 내셔널트러스트 운동과 생태산촌운동 등 환경보전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그를 만나 봤다. <편집자주>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어떤곳인가요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서울을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해 민간이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처음 발단은 서울대 환경대학원내의 CEO지속가능경영포럼 멤버들이 주축이 돼 시작됐지만 점차 외부의 많은 환경전문가들과 숲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참여해 발전하게 됐습니다. 정부기관과는 달리 민간 위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돈을 가지고 조식을 이끌어 가고 있지요.

서울그린트러스트는 목섬의 서울숲을 조성하는 일을 서울시와 함께 했으며 현재도 서울 숲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라면 막연히 개발운동을 반대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린트러스트는 시민들이 직접 기부한 돈을 가지고 훼손 위기에 놓인 자연 공간을 매입해서 개발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Negative 운동이 아닌 Positive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지요.

서울그린트러스트의 목적과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서울을 푸르게’라는 구호 아래 서울시의 녹지를 늘려 가는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목섬의 ‘서울숲’ 조성 및 운영과 서울시의 ‘동네숲’ 가꾸기 운동 등이 있지요. 목섬 ‘서울숲’의 경우 공원화 조성과정에서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서울숲은 시민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공원인 셈입니다.

서울그린트러스트의 또 다른 활동인 ‘동네숲 가꾸기’ 운동은 서울시의 자투리 땅을 찾아내 녹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서울의 대기오염을 숲으로 정화시켜 보자는 노력이지요.

공원이나 숲을 민간에서 위탁관리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서울숲은 조성이나 운영 관리면에서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벤치마킹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도시 공원을 대표하는 뉴욕 센트럴파크는 1980년대 지역 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이 시민환경단체인 ‘센트럴파크 시민보존단’을 조직해 시민의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황폐했던 공원을 복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도 뉴욕시의 개입은 전혀 없이 대부분의 예산을 시민기금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숲도 민간 재단법인인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센트럴공원의 개념을 바탕으로 운영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주요 도시에 비해 서울의 녹지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서울 도심의 숲만 따지고 본다면 매우 열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워싱턴, 캐나다의 밴쿠버 같은 선진국 대도시 숲 속에 빌딩이 하나, 둘 정도 보이지만, 후진국 도시는 빌딩 속에 나무 한 그루를 찾기 힘들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은 선진국이지만, 도심의 녹지수준으로 보면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대기오염의 정도로만 따져서 서울시민이 일본 동경 시민보다 평균 수명이 3년이나 짧은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환경대학원은 1968년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개설(행정대학원 내)을 시작으로 출발했다. 1973년에 조경학과를 신설, 통합하면서 개원되었다. 1975년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는 환경계획학과로, 조경학과는 환경조경학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했다. 1980년에 환경계획학과에 박사과정을, 1990년에는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을 1997년에는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석·박사과정을 각각 개설했다. 환경대학원은 크게 환경계획학과와 환경조경학과로 나뉜다.

■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국토 전반, 도시 및 지역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계획 및 개발 정책을 수립, 낙후지역 재생, 지역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합적 커리큘럼 운영 및 연구 활동
교통관리 전공	교통정책과 계획이 국토전체 및 도시·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공학적, 경제적 분석적인 관점으로 평가, 예측 능력 배양
환경관리 전공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공학적, 생태적, 기술적 접근 방법은 물론 환경정의, 갈등관리, 위함관리 등 인문사회학적 분석과 해결방안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연구

■ 환경조경학과

조경설계 전공	환경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통해 폭넓은 디자인 철학과 비전 수립. 광역 환경 공원녹지, 도시 오픈스페이스, 여가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주제로 이론연구와 계획 및 설계 스튜디오를 병행하여 교육
도시설계 전공	도시 내 공공공간의 질을 향상하는 설계 방법 연구, 공공영역 디자인 기법 관한 연구 수행. 이를 위해 주거환경, Newtown in Town, 도시수변공간, 도시내 오픈스페이스를 주요 설계 대상으로 함.

교수소식 (가나다순)



김성수 교수는 11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린 ‘혼잡통행료 확대 대상지 선정과 통행료 징수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가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유병림 교수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대 5개 마을을 청자를 주제로 쾌적하고 독특한 마을 조성, 더불어 사는 마을, 삶의 질 향상, 소득기반 창출을 목표로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윤순진 교수는 11월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재생 에너지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동수 교수는 두 편의 SCI 논문 원고를 완성했다.

1. "Influence of the large grid size used in a multimedia mass balance model (POPsME) on the exposure assessment of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and dibenzofurans,".
2.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aquatic ecological risk assessment system (KORECORisk) for the management of industrial complexes,".



김광원(사진)·양병이 교수는 10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30년 근속 표창장을 받았다.



조경진 교수는 10월 17일 '2007년 한국공공디자인학회'에 참가하여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실천전략』 논문을 발표했다.

CEO지속가능포럼 2기 회장 남승우 풀무원 사장

“인간의 건강과 지구환경 지속가능 함께 고민”



국내 대표적 환경경영 CEO로 알려진 남승우 풀무원 사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CEO지속가능경영포럼 2기 회장을 맡고 있다.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내걸고 일찌기 환경경영을 실천한 풀무원은 올해 7월 국내 식품기업으로는 처음 국제기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놓았다. 남승우 사장을 만나 풀무원이 실행 중인 지속가능경영의 내용과 환경을 중시하는 그의 경영철학에 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풀무원 하면 ‘믿을 만한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에 대한 비결은 무엇인지요.

풀무원은 창사 이래 한결 같이 자연과 신선, 안전의 원칙이라 ‘내 가족

의 행복을 위한 바른 먹거리’를 만들어왔다고 자부합니다. 환경친화 농업의 유기농 채소사업으로 시작된 풀무원은 건강과 이웃사랑이 사업의 목적인 뿐 아니라 전제조건이기도 한 것이지요.

원료에서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식품회사로 성장했다고 밝힙니다.

남보다 먼저 환경경영, 내지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게 된 계기와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풀무원은 원경선 원장이 처음 창업했던 시절부터 유기농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출발부터 환경이 이슈였던 것이죠. 유기농을 통해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해 왔습니다.

풀무원의 비전인 ‘인간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LOHAS(Lifestyles of Health& Sustainability) 선도기업’에 풀무원의 환경경영 의지가 함축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LOHAS란 ‘건강과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생각하는 의식 있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뜻합니다.

풀무원은 일찍부터 생산현장에서는 ‘환경보전원칙’을 준수해 왔고 특히

에너지와 용수 폐기물의 절감을 위해 혁신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 원부자재와 소모품 사용용품 설비 자재들을 친환경제품으로 구매하는 녹색구매를 전사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가지 원칙이 들어 있는 유엔지구협약에도 서명 가입했습니다.

이처럼 남보다 먼저 환경경영을 실천한 것은 아마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CEO지속가능경영포럼을 통해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밝힙니다.

풀무원이 7월 발표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말해 풀무원의 지속가능경영 자기 진단서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진정한 성공과 장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지요.

풀무원의 7개 생산법인을 포함한 국내사업부문 사업장을 총 망라해 지난 2006년 한해 동인의 데이터를 기초로 사업과 경영의 내용을 글로벌 기준으로 점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책임경영과 공정투명경영 환경경영 혁신창조경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실천 지침이 포함돼

있는 이 보고서는 풀무원의 무형의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법학을 전공하신 남사장님은 식품공학이나 환경 분야에 조예가 깊고 시고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만.

식품사업을 하다보니 자연히 미생물과 식품공학 등에 관심이 갖게 됐습니다. 특히 생수 사업을 하면서 언론과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미생물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87년부터 10여년 공부한 끝에 연세대학교에서 산업공학석사와 식품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CEO지속가능경영포럼을 통해 이분야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많은 토론을 한 것이 환경분야 공부에 도움이 됐습니다.

국내 대표적 식품업체를 경영하시는 CEO로서 평소 가지고 계신 경영철학은 무엇인지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기업의 생존 부등식 V (Value) > P (Price) C (Cost) 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투명경영을 위한 바른마음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오랫동안 장수하는 성공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EO지속가능경영포럼 7기 25명 수료



환경대학원 제7기 CEO지속가능경영포럼 학생들의 수료식이 10월 2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25명의 수료생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 내빈, 가족 등 약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기호 환경대학원장은 식사를 통해 이제 사회는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고 있으며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강조했다. 따라서 지속가능경영포럼이 우리나라 환경과 경제의 불사이며 햇빛의 역할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진수 7기 회장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김기호 원장에게 발전기금을 대표로 전달하였다. 김기호 환경대학원장은 아시아지속가능연구센터를 위해 잘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CEO지속가능경영포럼

날짜	토론주제
4/10 (화)	출범식
4/12 (목)	환경문제 진단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책
4/17 (화)	지속 가능한 국토 정책
4/19 (목)	21세기 메가트렌드와 지속가능경영
4/24 (화)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와 전망
4/26 (목)	기업의 환경경영전략
5/1 (화)	온실효과와 환경
5/3 (목)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설계
5/8 (화)	도시의 생명력, 그린웨이
5/10 (목)	지속가능한 에너지 / 환경정책
5/15 (화)	중국의 환경문제
5/17 (목)	중국의 경제비유와 한국의 전략
5/22 (화)	지속가능경영
5/31 (목)	우리나라의 전통생태
6/5 (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책임투자
6/7 (목)	Fellow 발제
6/12 (화)	한반도 대응하
6/14 (목)	자자체의 환경문제와 친환경정책 사례
6/19 (화)	우리나라의 산업정책과 환경과제
6/21 (목)	부부특강 (건강 특강)
6/26 (화)	국내사찰
7/18 (수)	국외사찰
9/4 (화)	유엔 글로벌 컴팩트
9/6 (목)	Fellow 발제
9/11 (화)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9/13 (목)	식물과 환경,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9/18 (화)	희망한국을 디자인한다 / 글로벌 컴팩트 해외성공 사례
9/20 (목)	부부특강

도시·환경 고위정책과정 1년 두차례 나눠 실시

도시·환경 고위 정책과정은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도시 및 환경문제를 전문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1995년 설립됐다. 이 과정은 2001년에 'CEO지속가능경영'과 '도시·환경디자인 최고전문가과정'으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 CEO지속가능경영포럼

우리 사회의 무분별한 산업화와 근시안적 발전모델 등에 대한 반성과 함께 경제와 환경 모두를 살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현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설립됐다. 기업의 환경경영실천, 친환경정부 실현



및 국토보존, 녹색 시민사회 실현 및 구도보존, 녹색 시민사회 실현을 위해 민간산학연의 각 부문에서 참여하고 있다.

● 도시·환경디자인 최고전문가 과정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조경, 건축, 환경 등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도시 환경 디자인 분야의 중요한 주제와 현안과제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여 설립됐다. 이를 위해 실무현장과 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협소한 시간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도시·환경디자인 최고전문가 과정

날짜	토론주제
10/16 (화)	그린웨이 : 도시환경과 경쟁력
10/18 (목)	다품종·소량시대의 도시혁신 전략
10/23 (화)	환경윤리와 철학 : 쟁점과 대안
10/25 (목)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전략
10/30 (화)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도시개발
11/1 (목)	환경정책과 수자원관리
11/6 (화)	생태단지·도시 조성의 원리와 사례
11/8 (목)	Fellow 발표 (1)
11/13 (화)	(open 강연) : 도시기관의 이해와 관리
11/15 (목)	장소개념의 원리와 사례
11/20 (화)	도시생태와 경영혁신, 서울시 창안포럼
11/22 (목)	Fellow 발표 (2)
11/27 (화)	전통생태의 복원과 현재적 의미
11/29 (목)	환경문제의 진단과 갈등관리 12월 ~ 1월 방학기간
2/12 (화)	대전제국의 서울 황성 만들기
2/14 (목)	도시설계와 도시정비·관리
2/19 (화)	한국의 사회문화
2/21 (목)	국토정책의 이슈와 과제
2/26 (화)	토지·주택문제와 부동산 정책 : 쟁점과 대안
2/28 (목)	Fellow 발표 (3)
3/4 (화)	한국 전통의 생태미학
3/6 (목)	(open 강연) 도시재생 : 서울 강북 활성화의 과제와 전략

해외학자 환경대학원

CEO지속가능경영포럼과정은 지난 2006년 5월 17일, 환경대학원내에 공익도시환경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매해 발표되는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에서 줄곧 하위권에 머물러온 서울에 대해 환경과 삶의 질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경제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바탕이 된 것이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공공 공간이 실종된 도시 개발의 관행에서 기인했으며, 도시 개발의 주체가 토지 소유자인 관계로 개발 가정에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공익도시환경디자인센터는 이 같은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CEO지속가능경영포럼과정은 정부/기업/시민사회 각계 전문가의 만남으로 도시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

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실질적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고자 센터를 설립한 것이다. 시민단체, 공공부문, 기업, 학계 등 다영역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설립된 센터는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익을 도모하는 설계를 제안해 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커뮤니티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선다. 우리 도시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적 도시로 성장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익도시환경디자인센터 설립운영

CEO지속가능경영포럼과정은 지난 2006년 5월 17일, 환경대학원내에 공익도시환경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CEO지속가능경영포럼과정은 정부/기업/시민사회 각계 전문가의 만남으로 실질적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고자 센터를 설립했다. 다영역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설립된 센터는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익을 도모하는 설계를 제안해 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 도시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적 도시로 성장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

고위정책과정 송년회

CEO지속가능경영포럼과정은 지난 2006년 5월 17일, 환경대학원내에 공익도시환경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매해 발표되는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에서 줄곧 하위권에 머물러온 서울에 대해 환경과 삶의 질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경제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바탕이 된 것이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공공 공간이 실종된 도시 개발의 관행에서 기인했으며, 도시 개발의 주체가 토지 소유자인 관계로 개발 가정에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공익도시환경디자인센터는 이 같은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CEO지속가능경영포럼과정은 정부/기업/시민사회 각계 전문가의 만남

GSES

칼럼

기후변화에 대한 공방



이정연 교수

환경문제처럼 사람들 사이에 큰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사회 문제도 별로 없는 것 같다. 한편에서는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완화를 주장한다. 특히 경제이론을 등에 업은 시장주의자들이 규제완화를 강하게 요구한다.

지구온난화 문제만 해도 그렇다. 환경보전론자들은 지구의 기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걱정이 태산 같지만 그것이 정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매우 많다. 설령,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좋으면 좋지 나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어떤 경제학자는 지구온난화가 전지구적 식량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환경문제의 큰 특징은 불확실성이다. 보통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률분포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다. 확률을 알고 있으면 기댓값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확률을 모르면 그것도 할 수 없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조속한 규제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환경보전론자가 주장할 때, 시장주의자는 그 이익이 비용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환경문제에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지구의 기온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고 누가 100% 장담할 것인가?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시장주의자의 말에 따라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경재앙이 터질 확률이 0임을 은연중에 가정하는 것과 진배없다. 불확실하다는 것이 확률이 0이라는 뜻은 아니다.

환경보전론자는 어떤 시장주의자의 태도에 강력 반대하면서, 막대한 환경재앙에 예상되는 경우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책을 소홀히 하서는 안 된다는 소위 '예방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주의자는 물론 경제학자들도 예방의 원칙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경제이론이나 시장논리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시장논리나 경제논리의 한계를 본다.

환경문제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인간의 생명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규제는 인간생명에 관한 것이다. 물론 다른 규제들 중에도 생명을 다루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환경오염규제의 주목적은 인간생명의 구조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규제로 인한 사회적 편익에서 인간생명의 구조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장주의자의 요구에 따라 환경규제나 대책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우선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과연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나타낼 것인가? 미국의 어느 경제학자는 생명의 가치가 약 6백만 달러라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경제학자는 설문조사 방법이나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태로부터 추정하는 방법을 자주 쓴다. 설문조사 방법은 요컨대 생명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묻는 방법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명에 당신은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설령 선뜻 대답하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나 아내, 지식, 친구, 이웃이 생각하는 지불용의액(가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생명의 가치를 추정한다고 하면, 경제학자가 조사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망할 확률을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그런 위험한 직종을 과연 자발적으로 선택하였을까? 등 등 수없이 많

은 질문이 제기된다. 현실의 시장은 이런 질문에 부정적 대답을 준다. 시장주의자나 경제학자는 현실의 시장이 교과서상의 시장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기 일쑤다. 여기에서 시장논리나 경제논리의 또 하나의 한계를 본다.

환경문제는 대부분 경제논리나 시장논리를 벗어나는 문제다. 그렇다고 환경문제를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할 때 경제논리나 시장논리를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모든 환경규제나 대책은 시장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규제에서 보듯이 시장에서는 애당초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효과나 나타날 수도 있다.

경제논리나 시장논리를 잘 알아야 현실적인 환경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환경규제나 대책에 대한 시장주의자의 거센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경제논리나 시장논리를 잘 알아야 한다. 환경문제의 본질은 물론 시장의 한계를 잘 알지 못하는 시장주의자도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경제논리나 시장논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환경보전론자는 더 많은 것 같다. 환경대학원은 경제논리와 시장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훌륭한 계회가, 훌륭한 환경보전론자를 배출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朝鮮日報

시론

'야망 시대'의 조락(凋落)



전성인 교수

얼마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사를 장래 희망직업 1위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90여 개 초·중·고 재학생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교생에게 공히 나타난 현상이었다. 교사 다음으로 선호하는 직업으로는 의사, 공무원, 회사원 등이 손꼽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교사직이 구가하는 인기는 사실상 전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입시학원에서조차 과거에는 '서울대 반(班)' '연·고대 반' 하는 식이었으나 요즘은 '의·치·한 반'이나 '교·시대 반'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일이 많아졌다. 의대나 치대, 한의대와 더불어 교대나 사범대의 높은 주가(株價)가 반영된 탓이다.

청소년들이 교직을 선호하는 현상에 대해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안정적인 직업 가운데 하나라는 설명이 유력하다. 10년 전 외환위기와 함께 공무원과 교사의 인기가 급상승했는데 현재의 장기 불황을 감안한다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학생 당사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일진대 누가 옆에서 왈가왈부하겠는가. 취업을 목전에 둔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같은 이른바 '철밥통' 직장은 시쳇말로 ' 인기 짱'이다.

문제는 젊은이들의 안정위주 미래설계가 단순한 직업선택의 수준을 넘어 일종의 시대정신 혹은 세대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부터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상에 대한 식견에 있어서 점점 '배 어른'이 되고 있다. 우선 이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역사적 대업(大業)을 성취한 이후 일상적 삶과 개인의 행복이 보다 더 중요시되는 추세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말하자면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Boys be ambitious)라는 개발

연대의 격언이 역사적 소임을 다한 느낌이다.

그런데 이러한 야망시대의 조락(凋落)에는 모종의 '보이지 않는 손'도 작용하는 분위기다. 그것은 평등주의 정서의 민연 및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특색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성싶다. 10년 가까이 자칭 진보세력이 집권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권력이나 부귀(富貴) 지체에 대한 반감과 증오가 조건반사적으로 팽배해 있다. 도처에 '물지 마 반(反)엘리트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마당에 누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동량(棟梁)으로 자처할 것이며, 어떻게 세계적 지도자가 되기 위한 원대한 꿈을 키울 수 있겠는가. 미래직업과 관련하여 후속세대들이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 자체는 개인적 차원에서 분명히 합리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장차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 다임하고도 진취적인 엘리트 계층의 양성을 저해한다면 사회 전체가 장기적으로 얻게 될 손익(損益)에 대해 보다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물론 사

회적 리더를 배양하기 위한 교직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그런 점에서 교직에 인재가 물리는 일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직업 간 균형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교직 인기 1위가 장기적으로 구조화되는 경향에 무조건 박수만 칠 수는 없다.

미래세계에는 '창조적 소수'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진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패기와 자신감 및 도전의식도 따라서 과거에 비해 가일층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의 미래세대가 안정적 직업군에 계속 대거 쏠리는 경향은 얼마간 안타깝다. 사회가 보다 미래지향적이 되려면 남들이 안 가는 길을 끼어 택하는 용감한 어린이와 젊은이가 많이 나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결코 그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책임으로 말하자면 세계적 무한경쟁 시대에 직업선택의 여지를 그 정도밖에 만들어주지 못한 기성사회의 몫이 훨씬 더 크다. 부끄럽고 미안한 것은 오히려 어른 쪽이다. <11월 28일>